

‘희망의 산악인’ 김홍빈 대장 3주기 추념식 개최



장애인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을 기리는 3주기 추념식이 13일 광주 서구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김홍빈 기념관’ 건립 뜻 모아주길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를 딛고 7대륙 최고봉을 오른 데 이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 기록을 세운 후 하산하던 중 실종된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 3주기 추념식이 13일 광주 서구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사)김홍빈과 희망만들기 주최로 열린 이날 추념식은 추모 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 약전(略傳) 낭독, 묵념, 추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식에는 정준호 국회의원과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

장, 김병내 남구청장, 진건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한상득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미근 대장 등 산악계 선·후배들이 참석했다.

류재선 (사)김홍빈과 희망만들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김 대장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데만 집착한 게 아닌 자신의 한계에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며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힘쓰신 산악인이었다”며 “고인이 생전 실천해왔던 도전과 나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김홍빈 기념관’ 건립에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한편 고 김홍빈 대장은 지난 2021년 7월 18일 브로드피크(해발 8047m) 정상에 오르며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4좌 등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하산하던 중 해발 7900m 부근에서 조난당해 파키스탄과 중국 측의 도움으로 헬기 수색 등을 펼쳤지만 현재까지 실종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의 위상을 높인 김 대장의 공적을 기려 체육훈장 청룡장을 추서했고, 대한체육회는 ‘2021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했다.

/글·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공)는 최근 4차례에 걸쳐 본부 직원 14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혹서기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 속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심

폐소생술 방법 및 마네킹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으로 광주 서구보건소 및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와 함께 교육을 실시했다.

주인도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은 “실효성 있는 실습교육을 통해 공사 모든 직원이 응급상황에서도 소중한 가족과 동료, 나아가 국민을 지키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허만 디엔티 대표, 초록우산 그린리더클럽 위촉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유성)와 순천후원회(회장 고희문)는 최근 허만 디엔티 허만 대표이사를 초록우산 그린리더클럽 회원으로 위촉했다. <사진>



초록우산은 매월 정기 10만 원 이상 또는 일시 1000만 원 이상 후원자를 그린리더클럽 회원으로 위촉한다.

여수시 울촌면 울촌산단에 분사를 둔 (주)디엔티는 고품질 신축이음 등을 생산 및 공급하는 회사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허만 대표이사는 “여민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눔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목포대 강지원 학생

유체기계학회 우수발표상



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기계조선해양공학부 기계공학전공 4학년 강지원(사진)씨가 최근 한국유체기계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 강 씨는 ‘이산화탄소 가스 용해를 위한 초미세기포 발생기의 성능 및 내부유동 CFD 해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초미세기포 발생기의 고성능 설계와 그 성능 및 내부유동을 평가하고 분석한 연구결과의 우수함을 학술대회에서 인정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서창농협, 원로 조합원·경로당 어르신 복달임 행사



서창농협(조합장 김명열)은 초복을 앞둔 지난 12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 ‘사랑기득 행복기득 초복 복달임’ 행사를 갖고 원로 조합원 및 경로당 어르신들의 인부를 살피면서 닭·과일·떡·김치 등을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1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30 KBS 뉴스 930	20 일일드라마 스캔들(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빠씨 좋아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05 여긴 어디(재) 10 TV쇼 진품명품(재)	00 박원숙의 같이 삼시대(재)	15 헬로킴지 과학교실(재) 30 토닥토닥 꼬꼬 새로운 탐험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00 KBS 뉴스 12	20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네모세모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헬로킴지 TV생물도감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지오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KBS 뉴스타임 15 린디의 신기한 여행 2(재) 30 TV 유치원(재)	55 기본 좋은 날(재)	00 뉴스브리핑
00 시사건건	00 스튜디오 K	55 5시 뉴스와 경제	00 보물지도 55 닥터 36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스캔들	05 용감무쌍 용수정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팝업상록죽전 스페셜		30 KBC 8 뉴스
00 KBS 뉴스 9		00 폭 쉬면 다행이야	00 시터치! 따라따따 30 도시락 스페셜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10 다큐 인사이트 스페셜	45 오온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통상이동 2너는 내 운명
35 박원숙의 같이 삼시대(재)	10 2024 파리 올림픽 특집 40 MA1(재)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4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50 KBS 재난방송센터	30 양코리 UHD 특선 다큐 섬바디투립	50 휴먼다큐 미남 이쁜 우리남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5일 (음 6월 10일 庚辰)	☎ 010-9790-8237
	36년생 공허한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자. 48년생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분이 들 것이다. 60년생 손조움을 이끄는 선행 조짐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72년생 좌충우돌과 다사다난함을 뒤로하고 성사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84년생 과욕만 하지 않는다면 고통은 없으리라. 96년생 조용히 덮어 두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22, 99	42년생 귀인으로부터 질질했던 당해 사항에 대해 은혜를 입게 된다. 54년생 함께하는 이에 따라서 완전히 달랠 것이다. 66년생 자신감을 느끼고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8년생 굳이 따라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90년생 일일이 확인하는 습관이 유익하다. 02년생 임시변통이라면 문제가 속출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1, 66
	37년생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은 없느니라. 49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첫발을 내디딜 것이다. 61년생 상대의 뜻에 반한다면 매우 불면해질 수도 있다. 73년생 때를 만났으니 한껏 포부를 펼쳐도 된다. 85년생 언행을 무겁게 하되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이롭다. 97년생 여과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0, 84	43년생 하나의 이런 아래에 다수의 이해 관계인이 모여들 것이다. 55년생 노력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국면이리라. 67년생 낮추면 높아질 것이요, 비우면 반드시 채워지리라. 79년생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급히 터지리라. 91년생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03년생 신변에 많은 변화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3, 98
	38년생 지금의 마당에서는 참신한 변화의 추구가 활로를 개척하는 생명선이라 할 수 있다. 50년생 직관에 따르더라도 무리는 없다. 62년생 방비하지 않으면 임박하여 혼란에 빠지면서 손실을 부른다. 74년생 전군만마를 얻음과 같이 흡족하리라. 86년생 사례를 참고한다면 도움이 된다. 98년생 갈구해 왔던 바가 실현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96	44년생 확신이 지나치다면 주변인들에 대하여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알라. 56년생 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 판세이리라. 68년생 소탐대실하지 말라. 80년생 실현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행복 지수가 매우 높아진다. 92년생 적극성을 띤 선택이 아니라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04년생 끝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19, 77
	39년생 다 듣고 나면 전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51년생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이 위안함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63년생 확실하다면 사전에 변경해도 무방하다. 75년생 걸지레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진정한 실속을 찾아라. 87년생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 길조가 썩뜨리라. 99년생 총계 하려다 가더 망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4, 61	45년생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때 무난하게 처리된다. 57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69년생 조금만 더 진력한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81년생 균형이 깨진다면 공든 탑도 무너져간다. 93년생 일이 지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05년생 염원해 왔던 바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능률이 오른다. 행운의 숫자 : 24, 94
	40년생 합리적인 실행이 길성을 부르리라. 52년생 하찮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64년생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76년생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빨리 접는 것이 상책이다. 88년생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나의 여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00년생 금전상의 행운이 따를 수도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7, 74	46년생 미리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말쑥의 소지를 잃을 수 있다. 58년생 변화의 조짐이 보이니 확실하게 대처하라. 70년생 즉흥적이려면 다분히 오판의 소지가 있다. 82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94년생 막연하다면 실망감만 안겨 줄 뿐이다. 06년생 집중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41, 69
	41년생 손조움을 더 하고 있으니 가속도가 붙을 때다. 53년생 육식을 가려내지 못하고 함께하는 고통이 상당하다. 65년생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장애물이 보인다. 77년생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사시킬게 될 것이다. 89년생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필요가 없느니라. 01년생 악담 같은 없이도 닥칠 고통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3, 70	35년생 평시에 가져왔던 의문이 풀리리라. 47년생 방심하고 있다면 목전에서 불거쁨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예의 주시하라. 59년생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쓰자. 71년생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83년생 묵묵히 정도를 걸으면 그만이다. 95년생 생신적인 방언의 강구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11, 62